

내현적 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성 차이와 대인관계문제의 조절된 매개효과*

임 수 진*

김 유 연

호남대학교

본 연구는 남녀 중학생의 내현적자기애가 대인관계 문제를 통해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의 관계에서 성차이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연구대상은 G시의 남녀 중학생 240명(남학생 95명, 여학생 145명)의 자료를 사용하였고, 기초통계분석, 상관분석, SPSS Macro PROCESS 모델 4, 모델 1, 모델 7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현적자기애와 SNS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문제 중 맞섬의 문제는 유의미한 매개 효과를 나타냈다. 하지만 향함과 멀어짐의 문제는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둘째, 내현적자기애와 대인관계 맞섬문제에서 성차이의 조절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내현적 자기애는 성에 따라 다르게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내현적자기애와 SNS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성 차이와 대인관계 맞섬문제는 유의미한 조절된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내현적자기애 성향이 대인관계 맞섬 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성차이에 의해 조절되며, 이러한 대인관계 맞섬의 문제는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중학생의 내현적자기애와 대인관계문제의 심리적인 요인이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며, 청소년의 SNS 중독문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주요어 : 내현적자기애, SNS중독경향성, 대인관계문제, 성차이, 조절된 매개효과

* 본 원고는 김유연(2019)의 석사학위 논문의 데이터를 재분석하여 작성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임수진, 호남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조교수, 광주광역시 호남대길 60 지성관 6612호 / Tel: 062-940-5476, E-mail: sujinlim429@honam.ac.kr

미래창조 과학부(2014.)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성인보다 약 2.9 배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스마트폰의 서비스는 SNS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 중 하루에 10회 이상 SNS에 접속하는 학생은 57.3%로 나타났다(중앙일보 2018.5.12.). SNS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정보전달과 정보교환으로 사람들과의 관계형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급격한 확산으로 SNS에 대한 과도한 시간투자과 집착, 과잉통제로 인한 SNS 중독경향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추세이다. SNS 중독경향성은 SNS를 과다하게 사용하여 금단과 내성을 경험하면서 개인내적인 심리적 부작용과 외적인 대인관계에서 역기능을 초래한다는 김지선, 황성훈(2019)의 정의를 사용하고자 한다.

청소년들은 성인들에 비해 행동을 조절하는 힘(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중독에 쉽게 노출되는 경향성을 보이며, 청소년들의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의 부작용이 성인들보다 심각하였다(김보연, 2012). 청소년의 SNS 중독경향성의 문제가 우리사회에서 심각하게 대두되는 이유는 SNS의 지나친 사용이 직접 만나 대화하는 대면관계보다는 온라인상에서의 대화로 소통함으로써 비대면 대인 관계를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직접적인 소통의 단절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이다. 가족 또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소통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외롭고, 소외된 학생일수록 본인의 외로움을 해소하거나 도피하기 위해 가상의 공간인 SNS를 통해 관계형성해감으로써 더욱 쉽게 중독이 될 수 있다(김영숙, 2017).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외로움과 우울(오윤경, 2012; 이정화, 김호영, 강정식, 2017), 소외감(서원진, 김미리혜,

김정호, 조인성, 2015), 자존감(유현욱, 홍혜영, 2015), 사회불안(박승혜, 이승연, 2019), 병리적 자기애(류경희, 홍혜영, 2014; 서경현, 조성현, 2013)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자기애와 대인관계가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인으로 연구되었다(김지선, 황성훈, 2019; 박승혜, 이승연, 2019; 이계정, 정남운, 2007; 이정화, 김호영, 강정식, 2017; Peason, Hussain, Wickel, 2015).

일반적으로 자기애는 지나치게 긍정적이고 고양된 자기 개념으로 정의되어 왔으나, 현대의 많은 이론가들과 임상가들은 자기애를 단일 요인이 아니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Akhtar와 Thomson(1982)은 자기애적 성격을 외현적 자기애(overt narcissism), 그리고 내현적 자기애(covert narcissism)로 구분하였다. 그 중에서도 내현적 자기애가 중독과 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계정 등, 2007). 내현적 자기애는 지나치게 민감하고 취약하며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며 타인에 대한 만성적인 이상화와 강한 시기심을 가지는 특성을 보인다(강선희, 정남운, 2002).

자기애와 스마트폰,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등 SNS 유사매체와 관련된 선행연구에 의하면 자기애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SNS를 통해 이상적인 자기 모습을 표현해 낼 수 있기 때문에 SNS에 더욱 빠져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uffardi & Campbell, 2008). 특히 소심한 성격의 내성적인 사람이나 수줍음을 많이 타는 학생들이 더 많은 시간을 SNS이용에 활용하고, SNS 친구들을 많이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박웅기, 2013).

내현적자기애 특성이 강할수록 SNS중독경향성이 높아지는 것(이은지, 2015)에 대해 내현적자기애 성향이 강할수록 현실에서 충족되

지 못한 자기애적 욕구를 인터넷, SNS 등의 가상세계를 통해 보상 받고자 과다사용하고(서경현, 조성현, 2013), 이처럼 SNS를 통해 타인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 자존감 및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조다현 2014) 설명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실제 상황에서 표출하지 못한 자신의 웅대성을 인터넷 상의 SNS를 통하여 보상적 경험을 한다(이은지, 2015). 또한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기 위해서 SNS를 사용하고(변시영, 조한익, 2011). 이러한 사용이 부정적 정서해소 및 타인의 인정이라는 이차보상을 주기 때문에 반복적인 SNS 사용으로 이어진다.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사람들은 쉽게 사회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SNS 사용을 추구하게 된다. 사회적 보상 가설(social compensation hypothesis)에 따르면, 자신이 인식하고 평가하는 사회적 자원에 따라 인터넷이나 SNS와 같은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며, 현실에서의 사회적 자원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현실의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사회적으로 불안한 사람이 현실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불만족을 보상하기 위해 SNS를 더 자주 이용한다고 설명한다. 실제, SNS를 이용하는 동기로 외로움, 실생활에서의 대인관계문제, 낮은 사회적지지 등(서원진 등, 2015, 이정화 등, 2017)은 사회보상가설의 설명과 일치한다.

사회적 보상가설은 내현적 자기애뿐 아니라 대인관계 문제가 SNS 중독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대인관계는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정의되며, 우리는 타인과 끊임없이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대인관계는 매

우 중요하다(박현주, 2018).

그러나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때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갈등과 고립감은 심리적 부적응으로 연결되고 우울, 욕구좌절, 소외감, 불안과 같은 다양한 심리 장애를 일으키게 된다(서수균, 권석만, 2002). 이를 대인관계문제라고 하며, 대인관계 상황에서 서로 만족하는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대인관계 기술의 부족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대인관계를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하여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

최근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인해 가족과 친구들과의 대화시간이 감소하고, 청소년의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은 청소년의 사회적 불편감, 대인불안을 초래하고 대인관계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김원희, 2006)으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온라인을 통해 사회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결핍되어 있던 대인관계 욕구를 충족하게 되고, SNS의 과다사용 및 중독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즉,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주로 이용되는 SNS의 과다 사용으로 주변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쳐 또 다시 중독 상태에 빠지게 만드는 악순환 결과를 초래한다(최현석, 하정철, 2011). 대인관계의 어려움의 결과는 우울 불안, 소외 등의 심리적 병리와 함께 중독, 비행, 약물남용 등의 문제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장혜진, 2015).

Horowitz와 Leary(1957)는 대인관계 문제를 8 가지 유형으로 제안하였으며, 친애와 통제라는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친애 요인에는 냉담, 자기희생, 사회적 억제, 과관여가 포함되며, 통제 영역은 통제지배, 자기중심성,

비주장성, 과순응성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Horney(2006)는 인간의 신경증적 경향성을 사람을 향함(moving toward people), 사람에 대해 맞섬(moving against people), 사람들로부터 멀어짐(moving away people)으로 구분하였다. 향함은 타인의 긍정적인 평가와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 순정적이고 이타적이고 희생적이며, 타인을 지나치게 배려하는 모습을 보인다. 맞섬은 타인을 지배하고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자신의 이익과 욕구에 관심을 기울이며, 타인에게 자신이 필요한 존재임을 과시한다. 멀어짐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적인 거리를 만든다.

이영은, 박현주, 허창구(2016)는 8가지 대인관계 문제를 Horney(2006)의 세 가지 구분으로 범주화 하여 접근하였다. 향함문제는 과순응성, 자기희생, 비주장성으로 통제지배, 자기중심, 과관여는 맞섬문제로, 냉담, 사회적 억제, 멀어짐의 문제로 범주화하여 대인관계 문제를 유형화하였고,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대인관계의 향함문제, 대인관계의 맞섬문제, 대인관계의 멀어짐의 문제로 유형화 하여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기애와 대인관계 문제 관계에서는 타인의 인정과 존중을 추구하는 내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가 부정적이었다(강은정, 장성숙, 2006; 백승혜, 현명호, 2008). 이를 대인관계 하위유형별로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에서 과시적이고 웅대한 환상을 보이며, 타인을 지배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우월감을 느끼려는 맞섬문제, 타인에게 의존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향함의 문제, 타인과의 친밀감을 불편해하는 멀어짐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영은, 박현주, 허창구, 2016)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사람들은 관계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로 받아들여지는지에만 관심이 있어 지나친 자기 초점으로 대인관계 문제를 경험하기 쉽다.

결과적으로 내현적 자기애는 대인관계 문제를 매개하여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진다. 여기에 여성은 남성보다는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에서 불안을 더 많이 경험하여 대인관계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한다(강지혜, 2014)는 연구결과와 남녀간에 대인관계 지향성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던(박승혜, 이승연, 2019) 연구결과들이 혼재해 있어 대인관계 문제에 성차이가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SNS 중독경향성에도 여성이 더 취약하다(김선미, 서경현, 2015)와 또, 여성이 취약하기 보다는 남성과 여성의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주는 모델이 다르다(박승혜, 이승연, 2019)고 설명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 성별에 따른 대인관계문제와 SNS중독경향성과의 관계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청소년 중에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높은 청소년 초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가설 1. 중학생의 내현적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에서 대인관계문제가 매개할 것이다.

연구가설 2. 중학생의 내현적자기애와 대인관계문제에서 성차이가 조절할 것이다.

연구가설 3. 중학생의 내현적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성별과 대인관계 문제가 조절된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과 연구절차

연구는 SNS를 사용하는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G시 소재의 5곳의 중학교 학생 2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연구자가 직접 중학생을 대상으로 설문하거나 중학교 교사에게 연구 목적을 안내하고, 실시하는 눈덩이 표집을 하였다. 설문은 학교의 협조 동의를 받아 배부 후 회수하였으며, 모든 연구 참가자에게 연구에 대한 설명과 안내를 제공하였으며,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회수된 설문 중 문항에 끝까지 응답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하였다고 판단된 48부를 제외한 최종 240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남학생’이 95명(34.9%), ‘여학생’이 145명(60.4%)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았다. 학년은 ‘1학년’이 58명(21.3%), ‘2학년’이 84명(35.0%), ‘3학년’이 98명(40.8%)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SNS중독경향성

본 연구에서는 서경현과 조성현(2013)이 오윤경(2012)의 SNS 중독경향성 척도를 보완,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기존 11 문항에 집단 면접(focused group interview)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9문항을 추가한 총 20문항이다. 본 척도는 SNS에 대한 집착 및 금단증상, SNS의 과잉소통과 몰입, SNS를 위한 과도한 시간투자의 하위요인으로 구분되며, 4점 Likert척도이다. 총점수가 높을수록 SNS 중독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았고, 조성현, 서경현(2013)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 계수는 .92이며,

하위요인별은 SNS 집착 및 금단증상 .85, SNS를 위한 과도한 시간소비 .72, SNS 과잉소통과 몰입 .81로 나타났다.

내현적 자기애

본 연구에서는 Akhtar와 Thomson(1982)의 「자기애 성격장애의 임상특성」에 기초하여 개발, 수정한 강선희와 정남운(2002)의 내현적 자기애 척도(Covert Narcissism Scale)를 사용하였다.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의 범위는 45점에서 225점으로 총점수가 높을수록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강한 것이다. 하위 유형은 5개로 목표불안정,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 착취/자기중심성, 과민/취약성, 소심/자신감부족으로 구성된다. Akhtar와 Thomson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0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 계수는 .91이며,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소심 .67, 인정 .84, 과민 .84, 자기중심성 .80, 목표불안정 .68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문제

일상에서 청소년이 경험하는 대인관계문제들을 측정하기 위해 홍상환, 박은영, 김영환, 권정혜, 진유경(2002)이 한국 실정에 맞게 Alden, Wiggins와 Pincus(1990)의 대인관계문제검사(Inventory off Interpersonal Problems-Circumplex Scale: IIP-C)를 수정, 보완한 한국 대인관계문제 척도 단축형(Korean IIP-C)을 사용하였다.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요인으로는 냉담, 사회적 억제, 자기중심성, 비주장성, 자기희생, 과순응성, 통제지배, 과관여 8가지가 있으며 이를 다시 통제지배, 자기중심, 과관여는 맞섬문제, 과순응성, 자기희생, 비주장성은 향함문제, 냉담, 사회적 억

제는 멀어짐의 문제로 보았다. 홍상황 등 (2002)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Cronbach's α 는 .61-.89의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 계수는 .93으로 나타났으며, 맞섬의 문제는 .93 향함의 문제는 .89 멀어짐의 문제는 .83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주요 변인의 최소값과, 최대값, 그리고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등의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합치도(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내현적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성별과 대인관계문제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SPSS Macro PROCESS(Hayes, 2013)를 활용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해 확인하였다. Preacher, Rucker, 및 Haye(2007)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매개모형, 조절모형, 그리고 조절된 매개모형의 순서로 분석할 것을 제안하여, 본 연구도 이에 따라 분석하였다. SPSS Macro process 모델 4, 모델 1, 모델 7을 사용하였다.

결 과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표 1과 표 2에 제시하였다. 각 변인에 대한 최소값과 최대값, 그리고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연구 자료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검토하였다. Finch와 West(1997)는 측정변수들이 왜도와 첨도 절대 값이 각 2와 7을 넘지 않을 때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한다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왜도와 첨도 모두 절대값 2를 넘지 않으므로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변인들간의 상관은 내현적 자기애, 대인관계문제, SNS 중독경향성, 각각 모두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고 있다. SNS중독경향성은 내현적 자기애($r=.468, p<.01$), 대인관계문제($r=.400, p<.01$)와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내현자기애와 대인관계문제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내현적자기애와 대인관계문제($r=.718, p<.01$)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내현적 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

표 1. 주요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N=240)

변인	M (SD)			왜도	첨도
	전체	남	여		
내현적자기애	122.75(23.84)	117.75(21.78)	126.03(24.62)	.17	-.36
대인관계문제					
향함문제	44.30(10.46)	40.56(9.73)	46.75(10.23)	-.05	-.30
맞섬문제	36.79(8.87)	34.97(7.09)	37.97(9.70)	.18	-.29
멀어짐문제	26.35(7.46)	24.82(6.91)	27.35(7.65)	.09	-.59
SNS 중독경향성	44.26(11.40)	37.93(9.54)	48.41(10.62)	.24	-.70

표 2. 측정변인간 상관관계 (N=240)

	1	2	3	4	5	6
1. 내현적자기애	-					
2. 대인관계문제	.718**	-				
2-1. 향함문제	.572**	.848**	-			
2-2. 멀어짐문제	.587**	.864**	.649**	-		
2-3. 맞섬문제	.626**	.772**	.392**	.553**	-	
3. SNS 중독경향성	.468**	.400**	.303**	.233**	.446**	-

** p<.01.

서 대인관계 맞섬문제의 매개효과

내현적 자기애가 대인관계문제를 통해서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 SPSS Macro PROCESS Model 4를 지정하였다. 단순매개분석 결과 대인관계의 향함문제, 멀어짐의 문제는 매개효과를 보이지 않았고, 맞섬문제만 매개효과를 나타내 이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내현적 자기애는 대인관계 맞섬문제, $B=.23, t=12.38, p<.001$ 을 보였고, SNS

중독경향성에, $B=.22, t=8.17, p<.001$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다.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SNS 중독경향성을 종속변인으로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 맞섬문제를 동시에 투입했을 때 역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보였으며 각각 $B=.15, t=4.32, p<.001, B=.32, t=3.52, p<.001$, SNS 중독경향성에 대한 설명량이 22%에서 26%로 증가하여, 부분매개효과를 보였다.

매개효과 유의성을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표 3. 내현적 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맞섬문제의 매개분석

독립변인	종속변인	B	S.E.	t	95%CI		F	R ²
					LL	UL		
내현적자기애	대인관계 맞섬 문제	.23	.02	12.38***	.19	.27	153.36***	.39
내현적자기애	SNS중독경향성	.22	.02	8.17***	.16	.27	66.75***	.22
내현적자기애	SNS중독경향성	.15	.03	4.32***	.08	.22	41.16***	.26
대인관계맞섬문제		.32	.09	3.52**	.14	.50		
대인관계 맞섬문제의 Bootstrapping (10,000)		Effec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076		.02	.029		.124	

주. CI은 Confidence Interval; LL은 Lower Limit; UL은 Upper Limit

유의도 * p<.05, ** p<.01, *** p<.001

위해 SPSS Macro를 사용한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복원추출을 10,000번을 실시하여 95% 신뢰수준에서 상한값과 하한값이 [.029, .124]로 이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간접효과는 유의하였다.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었다.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 맞섬문제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 맞섬문제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SPSS Macro PROCESS Model 1을 지정하였으며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해 평균중심화를 한 뒤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내현적 자기애와 성별의 상호작용 항이 맞섬문제에 유의미한 영향 $B=-.11$, $t=-2.64$, $p<.01$ 을 주었다. 조절변인인 성별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그림 1을 나타냈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대인관계 문제에 내현적 자기애가 더 많은 영향을 주었다.

내현적 자기애,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성별과 대인관계 맞섬문제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Preacher,

표 4.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 맞섬문제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B	S.E.	t	95%CI		F	R ²	ΔR ²
				LL	UL			
내현적자기애	.26	.02	11.43***	.22	.31	55.33***	.39	.39
성별	11.60	4.89	2.37*	1.97	21.23			
내현적자기애 * 성별	-.11	.04	-2.64**	-.18	-.02	7.00*	.41	.02

주. CI는 Confidence Interval; LL은 Lower Limit; UL은 Upper Limit

유의도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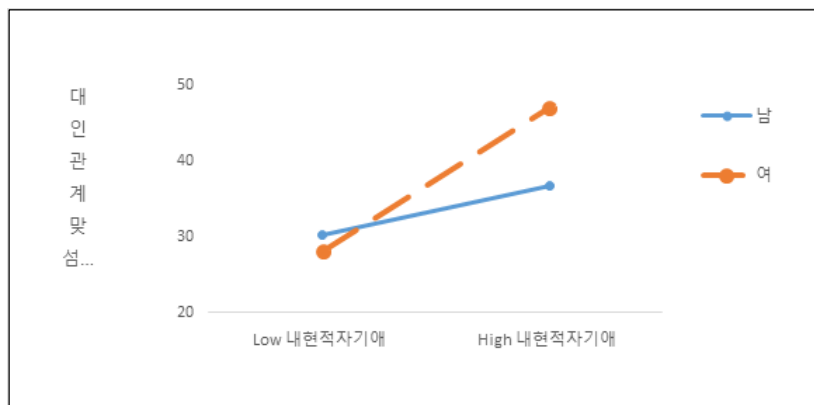


그림 1.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 맞섬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표 5. 내현적 자기애,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성별과 대인관계 맞섬문제의 조절된 매개효과

	종속변수 : 대인관계 맞섬문제				
	B	se	t	LLCL	ULCL
내현적자기애	.26	.02	11.43***	.22	.31
성별	11.60	4.89	2.37*	1.97	21.23
내현적자기애 * 성별	-.11	.04	-2.65**	-.18	-.03
	종속변수 : SNS 중독경향성				
	B	se	t	LLCL	ULCL
내현적자기애	.15	.03	4.32***	.08	.21
대인관계 맞섬문제	.32	.09	3.52**	.14	.51

주. CI는 Confidence Interval; LL=Lower Limit; UL= Upper Limit

유의도 * $p < .05$, ** $p < .01$, *** $p < .001$

Rucker와 Hayes(2007)의 방법을 적용하여 SPSS Macro PROCESS Model 7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독립변인인 내현적 자기애와 조절변인인 성별의 상호작용이 매개변인인 대인관계 맞섬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미($B = -.11, t = -2.65, p < .01$) 하였다. 또한 매개변인인 대인관계 맞섬문제가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미하였다 ($B = .32, t = 3.52, p < .01$). 이는 내현적 자기애가 대인관계 맞섬문제를 통해서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주는데, 성별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논 의

연구는 중학생의 내현적자기애가 대인관계 문제를 통해서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주며, 여기에 성별이 조절효과를 통해 영향을 주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가설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내현적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과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문제가 매개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내현적자기애는 SNS 중독경향성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었다. 즉 내현적자기애 성향이 강할수록 SNS 중독경향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김선미, 서경현(2015)의 연구, 이영은, 박현주, 허창구(2016)의 연구, 이은지(2015)의 연구, 서경현, 조성현(2012)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창식(2018)의 연구에서도 중학생의 내현적자기애의 하위요인 자기중심성/착취가 SNS 중독경향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내현적자기애 성향이 강할수록, 주변에서 인정과 긍정적 평가를 받고 싶지만 타인의 평가에 매우 민감하여, 면대면의 대인관계를 회피하게 된다. 대인관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회피하며, 회피로 인한 자존감저하 및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경험하게 된다. 현실에서 충족하지 못한 자기애의 욕구를 SNS를 통해 인정,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자 과도하게 다른 사람들의 ‘좋아요’ 반응 수, 댓글 등 SNS에 집착

하게 되며, SNS중독경향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결과에서 대인관계문제의 총점, 향함, 멀어짐의 문제는 내현적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과의 관계를 매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문제 중 맞섬의 문제만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인관계 문제를 향함, 맞섬, 멀어짐의 요인으로 살펴보았던 이영은, 박현주, 허창구(2016)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멀어짐의 문제는 SNS 중독경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타인과 적절한 거리감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은 SNS 사용을 줄이고 대인관계 문제의 공통변량에도 영향을 주어 총점과 멀어짐의 문제 모두 SNS 중독 경향성에 의미 있는 매개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대인관계 향함의 문제는 성인의 연구결과에서는 SNS중독 경향성에 영향을 주었지만, 청소년의 발달 특성상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성인에 대한 독립을 추구하고 반항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기에는 자신이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따르거나,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불행에 민감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특성이 역시 SNS 중독 경향성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반해 대인관계 맞섬문제가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것은 자기애 성향과 대인관계 문제 하위 요인 중 과관여, 통제지배, 자기중심성과만 정적상관이 있다는 진하영, 권은정, 권지은, 황순택(2010)의 연구와 이지영(2015)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내현적 자기애는 상관성이 높은 대인관계 맞섬문제를 통해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주었다.

두 번째로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 문제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앞서 대

인관계 문제 중 맞섬의 문제만이 매개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 맞섬의 문제에서 성차이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성 차이는 남자 청소년 보다는 여자 청소년이 내현적 자기애 수준에 따라 대인관계 문제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현적 자기애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높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이인숙, 2002; 조준희, 2017; 홍서윤, 2012)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은 불안과 대인관계 문제를 경험한다는 강지혜(201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여자 대학생은 대인관계 문제 대해 부정적 정서조절 전략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더 많은 대인관계 문제를 경험 할 수 있다는 홍서윤(2012)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여자 청소년은 대인관계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고 평가로 인한 수치심을 더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내현적 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과의 관계에서 성별과 대인관계 맞섬문제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내현적 자기애는 성차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대인관계 맞섬문제에 영향을 주었으며 SNS 중독경향성에 최종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SNS 중독경향성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욱 비율이 높다는 정소영과 김종남(2014), 김선미와 서경현(201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호협력력을 지향하고 사회적인 행동에 관여하는 경향이 있어 SNS를 사용하면서 중독될 수 있으므로 설명한다(Andreassen, 2015).

SNS 사용 동기 역시 여성은 기존의 친구를 유지하거나 안정된 관계를 맺기 위해 사용하지만 남성은 새로운 타인과 접촉하며 또 다른

대인관계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기 때문으로 설명(박승혜, 이승연, 2019)하기도 한다. 여성은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문제를 많이 경험하고 이게 SNS 중독 경향성에 영향을 주지만 남성은 내현적 자기애 성향은 여성보다 영향을 덜 받지만 대인관계 문제를 통해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남성이 대인관계 문제가 있을 때 자신에게 보상을 주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SNS 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사람들은 SNS 이용을 통해 타인의 인정이라는 사회적 보상을 받음으로써 사회교환이론을 지지하고 있다. 사회교환이론은 대인관계를 보상과 비용의 개념으로 분석하여 사람들은 칭찬이나, 명예, 권력 같은 것을 기대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욕구를 쉽게 채울 수 있는 것이 불특정 다수와 대인관계가 가능한 SNS와 같은 네트워크사용인 것이다. 자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경험하고자 하는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여학생들은 자기고양을 위해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타인을 이용하는 대인관계 맞춤 문제를 경험하고, 이러한 타인의 인정과 지지를 보상받기 위해 대인관계 실패를 덜 경험하는 SNS를 더욱 이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첫 번째 SNS 중독경향성에 청소년 대상 연구라는 점이다. 많은 연구들이 대학생이나 성인 중심으로 이루어졌었다. 과거에는 스마트폰 이용이 20대 이상의 성인에게 집중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SNS 접속률이 높아지고 있어 청소년에 대한 SNS 중독 연구가 필요하다. 결과를 기초로 청소년의 SNS 중독경향성을 낮

추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내현적 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김선미, 서경현, 2015; 이영은, 박현주, 허창구, 2016; 이은지, 2015; 이창식, 2018; 조성현, 서경현(2012)들은 많이 있었고, 대인관계문제와 SNS 중독경향성에 대한 연구(박승혜, 이승연, 2019; 오윤경, 2012,)도 있었지만 이러한 내현적 자기애가 대인관계 문제 중 맞춤 문제를 통해 SNS 중독 경향성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차이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것이다. SNS 중독경향성의 남녀 차이에 대한 결과들은 있었지만 이를 명확하게 규명하지는 못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 맞춤문제를 조절하여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준 것을 확인하였다. 여학생과 남학생의 SNS 중독경향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에는 반드시 성 차이를 고려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SNS 중독 경향성에 영향을 주는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 문제 등을 성별을 고려하여 중재한다면 청소년의 SNS 중독경향성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개입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의미 있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내현적 자기애 척도는 성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청소년의 병리적 자기애를 측정할 수 있는 검사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연구대상자들은 SNS 중독경향성 수준 자체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만성화되고 심각한 대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기보고식 질문지에 의해 설문되었기 때문에 연구대상자의 주관적인 견해가 포

함되어 있을 수 있다. 또한, 학교에서 설문을 했기 때문에, 연구대상자가 자신의 상태를 과장 혹은 축소해서 보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질문지 이외 관찰자 평가 등 조사대상자의 SNS 중독경향성의 행동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SNS 중독경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은정, 장성숙 (2007). 자기애와 내현적 대인반응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4) 913-932.
- 강선희, 정남운 (2002). 내현적 자기애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705-723.
- 강지혜 (2014). 남녀 중학생의 대인불안과 자기제시동기가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보연 (2012). 고등학생의 인터넷 게임 중독 및 스마트폰 중독과 수면부족 및 스트레스와의 관계. 삼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선미, 서경현 (2015). 내현적 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0(3), 587-603.
- 김영숙 (2017).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SNS중독 경향성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원희 (2006).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분석.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19.2.25.)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
- 류경희, 홍혜영 (2014). 중학생의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와 스마트폰 중독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1(8), 157-183.
- 박승혜, 이승연(2019) 성별에 따른 대학생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 사회불안,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 대인관계 지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2(1), 105-126.
- 박응기 (2013). 청소년의 SNS 중독에 관한 탐색적 연구. 언론과학연구, 13(4), 305-342.
- 박현주 (2018)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적 자기효능감, 성인애착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시영, 조한익 (2011). 정서경험과 정서표현성 및 이용동기가 인터넷 중독·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인간이해 32(1) 119-1330.
- 백승혜, 현명호 (2008). 내현적,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적대감, 분노경험수준, 및 분노표현양식.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7(4), 1001-1017.
- 서경현, 조성현 (2013). SNS 중독경향성 관련 요인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8(1), 239-250.
- 서수균, 권석만 (2002). 자존감 및 자기애 성향과 공격성의 관계.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1(4), 809-826.
- 서원진, 김미리혜, 김정호, 조인성 (2015). 외로움과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0(4), 497-512.
- 오윤경 (2012). SNS 중독경향성과 외로움, 우울, 대인관계, 사회적지지의 관계.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현욱, 홍혜영 (2015). 중학생의 또래애착과

-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4), 977-999.
- 에듀동아 (2018. 3. 20). http://edu.donga.com/?p=article&ps=view&at_no=20180320102748376058
- 이계정, 정남운 (2007). 내현적 자기애 성격성향과 인터넷 보상경험이 인터넷 과다사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1), 55-69.
- 이영은, 박현주, 허창구 (2016). 내현적·외현적 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 대인관계문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30(1), 63-80.
- 이은지 (2015).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과의 관계: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 검증. *순천향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화, 김호영, 강정숙 (2017). 외로움이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대인관계 지향성의 조절효과. *한국임상심리학회지*, 36(2), 154-164.
- 이지영 (2015).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 불안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곤란 및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인숙 (2002). 대학생의 자기애 성향과 대인불안 및 방어성간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창식 (2018). 중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또래 애착 및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혜진 (2015). 대학생이 지각하는 내·외향성과 대인관계만족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소영, 김종남 (2014). 개관논문: 대학생용 SNS 중독경향성 척도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9(1), 147-166.
- 조성현, 서경현 (2013). SNS 중독경향성 관련 요인 탐색: 내현적 자기애, 자기제시 동기 및 소외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8(1), 239-250
- 조준희 (2017). 내현적 자기애가 대학생의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매개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중앙일보 (2018. 5. 12). <https://news.joins.com/article/22616312>
- 조다현 (2013). SNS 중독경향성과 병리적 자기애, 정서 표현성, 친구 지향성,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관계: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하영, 권은정, 권지은, 황순택 (2010). 성격장애성향의 대인관계 문제: 자기-타인지각 비교. *인간이해*, 31(2), 211-230.
- 홍상환, 박은영, 김영환, 권정혜, 조용래, & 진유경 (2002).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 원형척도의 단축형(KIIP-SC) 구성.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1(4), 923-940.
- 최현석, 하정철 (2011). 대학생의 인터넷중독 유발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2(3) 437-448.
- 홍서운 (2014).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1(12), 73-95.
- Akhtar, S., and Thomson, J. A. (1982).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 12-20.
- Buffardi, L. E., & Campbell, W. K. (2008).

- Narcissism and social networking web sit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4(10), 1303-1314.
- Buist, K. L., Deković, M., Meeus, W., & van Aken, M. A. (2004). The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early adolescent attachment and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ur. *Journal of adolescence*, 27(3), 251-266.
- Hendin, H. M., & Cheek, J. M. (1997). Assessing hypersensitive narcissism: A reexamination of Murray's Narcism Scal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4), 588-599.
- Kim, H. K., & Davis, K. E. (2009). Toward a comprehensive theory of problematic Internet use: Evaluating the role of self-esteem, anxiety, flow, and the self-rated importance of Internet activitie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5(2), 490-500.
- Kuss, D. J., & Griffiths, M. D. (2011). Online social networking and addiction-a review of the psychological litera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8(9), 3528-3552.
- Lee-Won, R. J., Herzog, L., & Park, S. G. (2015). Hooked on Facebook: the role of social anxiety and need for social assurance in problematic use of Facebook.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8(10), 567-574.
- Leary, T. (1957). *Interpersonal diagnosis of personality; a functional theory and methodology for personality evaluation*. New York: Ronald Press.
- Mehdizadeh, S. (2010). Self-presentation 2.0: Narcissism and self-esteem on Facebook.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3(4), 357-364.
- Petrie, H., & Gunn, D. (1998). Internet" addiction": The effects of sex, age, depression, and introversion. *In British psychological society London conference (Vol. 15, p. 1998)*.
- Horowitz, L. M. (1996). The study of interpersonal problems: A Leary legac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ment*, 66(2), 283-300
- Horney (2006). *신경증적 갈등에 대한 카렌 호나이의 정신분석*. [OurInner Conflicts]. (이희경, 윤인, 이해라, 조한익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 연구소.(원전은 1983에 출판)
- Hayes, F. A.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 Based Approach*.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Preacher, K. J. Rucker, D. & Hayes, F. A.(2007). Addressing Moderated Mediation Hypotheses: Theory, Methods, and Prescription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42(1).
- Finch, J. F. & West, S. G. (1997) The Investigation of Personality Structure: Statistical Model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 439-485.
- Andreassen, (2015). Online Social Network Site Addiction: A Comprehensive Review. *Current Addiction Reports*, 2(2), 175-184.

원고접수일 : 2019. 10. 31.
수정원고접수일 : 2020. 04. 27.
최종게재결정일 : 2020. 04. 28.

The Role of Gender difference and Interpersonal Problem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 Narcissism and on Middle School Students' SNS Addiction Tendency

Lim Su Jin

Kim Yu Yeon

Honam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path of internal narcissism toward SNS addiction tendency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 study intended to test the hypothesis that internal narcissism personality would lead to the SNS addiction tendency through interpersonal problems and that the internal narcissism effect on the interpersonal problems can depend on Gender difference.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240 middle school students (95 male and 145 female students) in Gwangju area. The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SPSS Macro PROCESS Model were us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interpersonal problems mediation effect between inner narcissism and SNS addiction tendency of middle school students. Second, as a result of examining Gender difference moderating effect between internal narcissism, and interpersonal problems relationship. according to gender differenc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rd,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gender difference and interpersonal problems between internal narcissism personality and SNS addiction tendency relationship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Recently, social networking has become a serious problem in our society and it shows the highest rate of addiction in early middle school stud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factors of inner narcissism and interpersonal problems on the SNS addiction tendency, focusing on the gender differences in middle school students, and to provide basic data to prevent adolescent SNS addiction problems have.

Key words : gender difference, interpersonal problems, internal narcissism, SNS addiction tendency, moderated mediation effect